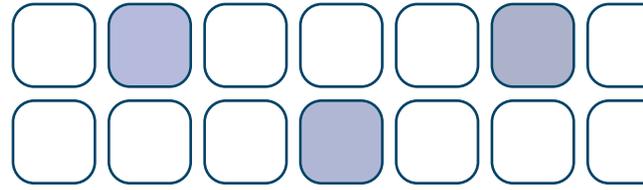


# VD RADAR



## 벤처관련

### 5대 IT융합분야 31개 국책과제, 총 706억 원 투자

지식경제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5대 산업과의 IT융합 분야에 총 706억을 투자한다. 이 규모는 기존 의류, 교육, 방재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투자한 금액까지

총 1,500억 원에 이른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IT융합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IT와 산업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IT융합기술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로드맵)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IT와 기간산업 전문가가 함께 새로운 융합산업 육성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IT기반 융합 신산업 활성화 포럼' 도개 최할 예정이다.

### 법인설립에서 인·허가까지 One-Stop 창업지원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지원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법인 및 공장설립에서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16일에 전국 11개 지방중기청에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에서는 사업개시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증 발급, 공장건축, 인·허가 취득 및 창업자금 조달까지 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57을 연결하면 전국의 창업지원담당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게 된다.

### KOTRA, 수출상담회 개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OTRA가 오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국제전력IT 및 전기설비전(글로벌파워텍)'을 연다. 남아공,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등의 전력기관 발주처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기업 현장애로 해결사 '1357기동반' 났다

이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 전화 한통이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중소기업청의 「1357 현장기동반」이 기업현장으로 달려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다. 애로신고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거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현장애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한 신고받지

않은 애로도 중소기업현장이나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여 해결·통보한다.

### '베트남 이코노믹스' 책자 발간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었다. 전 KOTRA 하노이 무역관장과 전 주베트남대사관 상무관의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펴낸 「5억 아시아 황금시장의 중심 베트남 이코노믹스」가 그것이다. '베트남 이코노믹스'에는 투자처로서 베트남에 대한 분석과 투자 유망업종, 베트남 진출의 성공과 실패 사례, 공장 건설관련 노하우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과의 관계,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특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베트남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프리보드, 테크노파크 벤처지원

프리보드가 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지역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프리보드를 운영중인 증권업협회는 4월 29일 테크노파크협의회와 '프리보드 시장을 통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가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들은 올 하반기부터 프리보드를 통해 추가적인 민간자본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테크노파크는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산업기술단지로서 시제품 개발 등 성장기계를 마련한 기술기반 중소기업 1065개(2007년 기준)이 입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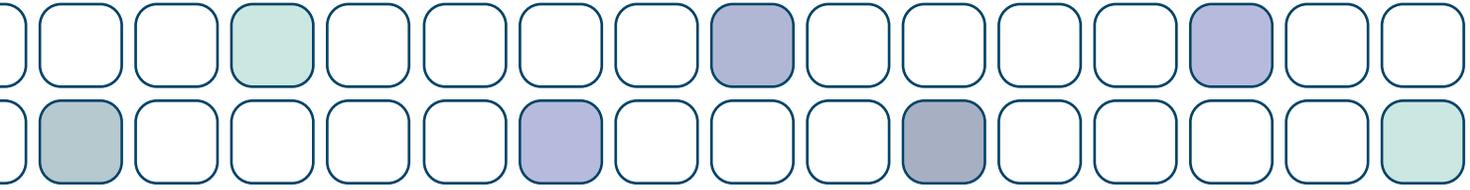
프리보드와 테크노파크는 오는 하반기부터 유망기업을 선정, 테크보드에 예비지정한 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 프리보드에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도 대외홍보 등 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이번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등에 175억 원 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금년 중 확장건립비 100억 원과 운영비 75억 원 등 총 175억 원이 지원되며, 지역특화산업 B 등 특화 B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우수한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생산시설 확보를 위한 보육실 확충비와 운영비 등 총 17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08년 창업보육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대학·연구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기청 지정 B는 총 269개이며 이중 성과가 우수한 7개 내외의 B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형 공간 제공을 위해 보육실을 확장할 수 있도록 B당 15억 원 수준으로 총 100억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150여 개가 창업보육센터에 추가적으로 신규 입주하여 사업공간 확보 및 각종 컨설팅 지원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남아공 정부관계자 등 방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KOTRA와 KORE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1회 광물자원 투자포럼이 4월 29일 KOTRA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금번 행사는 투자진출 부진 지역인 아프리카 최초의 투자설명회로 향후 남아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광물자원개발 투자확대가 이어지도록 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남아공의 광물자원부준 및 생산현황과 투자환경, 각 지방의 석탄, 우라늄 등의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칼라하리 망간광산 개발 등 구체적인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기업 간 상담회도 개최되었다.

남아공은 크롬, 백금, 금, 망간, 바나듐은 세계 1위, 우라늄과 니켈은 세계 5위, 아연과 석탄은 8위, 철광석 9위의 부존량을 자랑한다.

### 캠퍼스21, 중소기업 팀장을 위한 무료교육 실시

HRD 전문기업 캠퍼스21이 중소기업의 팀장 및 예비팀장을 대상으로 『고성과 창출을 위한 하이퍼포머 리더십』 교육을 올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한다.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의 일환으로 3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높은 성과를 올려야 하는 중소기업에서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팀장들을 위한 교육으로 이들이 '하이퍼포머 리더(고성과형 리더)'가 될 수 있는 핵심노하우를 소개한다. 교육 참여자는 행동유형 진단을 통해 자신의 유형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 적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활용하여 개발한 모의 경영게임을 통해 실제 조직활동 중에서 어떻게 하이퍼포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서울 청담동 캠퍼스21 라센센터와 구로디지털단지의 벤처인큐베이터, 부산 중영동 한진해운교육센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 및 참여신청은 캠퍼스21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홈페이지(sb.campus21.co.kr)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 부산시,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중합대책 추진

부산시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Business friendly」 관점에서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중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중합대책」 주요내용은

- ① 지방세 납세도우미 지정·운영 ② 지방세 모범납세자 지정 혜택 부여 ③ 국세·지방세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④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⑤ 기업을 위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개선 ⑥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 시스템 구축 ⑦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시스템 개선 ⑧ 지방세 분납대상 확대 ⑨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체 부담 경감 ⑩ 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희생 계획 추진 등을 담았다.

###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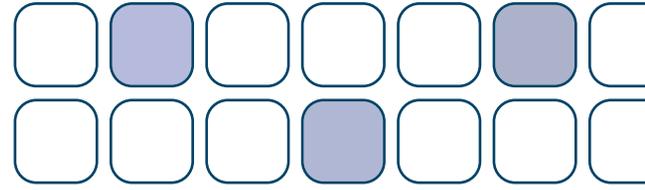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남부지소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업무를 시작했다. 남부지소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균형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동남부권 9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에 대한 중소기업의 현장밀착지원을 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현재 아산시 소재 본부센터에서 수행중인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기업용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찾아가는 기업애로 종합상담실 운영 ▲자체 교육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사책 설명회 및 실무자 업무능력 향상교육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책을 도내 동남부권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아산, 041-539-4544) 또는 남부지소공주, 041-881-54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남도, 기업애로 무료상담 및 자문 실시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에 취약한 법률·세무·회계·노무·관세 등의 업무지원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관세사 등 4명의 외부전문가를 4월 1일자로 경상남도 기업사랑 무료자문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애로 접수는 「기업정보 포털 시스템」(biz.gsnd.net) 기업애로상담 → 기업사랑무료자문단 코너를 클릭하면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직접 기업의 애로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답변을 듣게 된다.

# VD RADAR



## 차세대 유비쿼터스 연구소 부산에 설립

차세대 유비쿼터스 환경의 핵심 기술로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하에서 참여자와 실생활 환경간의 지능적이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엠비언트 인텔리전스 연구소(Institute of Ambient Intelligence, IA)가 부산 동서대학교에 설립된다. IA에서는 컴퓨터그래픽스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하에서 인간과 실생활환경간의 지능적이며,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가능한 엠비언트 인텔리전스 기반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 프로젝트로 영화/애니메이션/게임콘텐츠 제작설계에서 관리, 사후서비스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제작비절감/공정단축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발전된 제작 방안을 제공할 3차원 사전시각화(3D Pre-Viz)시스템 개발을 하게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엠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용한 해양생태학 및 해양학적 근거의 종합적인 환경 모니터링(Eco-Monitoring) 시스템으로 공동 연구 · 개발한다.

## 부천시식재산센터, 선행특허조사 무료 지원

부천시식재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산업재산권 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 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선행특허조사를 무료 지원한다. 선행특허조사는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권리 침해로 경고장을 받고 대응하고자 할때 선행특허와 기술조사를 통해 중복연구 및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권 획득가능성을 높이고 권리분쟁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기간은 올 11월 말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산업진흥재단(032-621-2082)으로 하면 된다.

## 부산경제진흥원 6월에 오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지원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원스톱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부산경제진흥원이 6월 중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진흥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 규모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콜센터, 종합상담실, 옴부즈맨 등 10여 명의 직원을 배치, 창업에서 자금조달, 기술,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애로상담, 안내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곳 콜센터에서는 상담원 4명이 기업관련 전화상담 및 안내를 지원하게 되

며, 전화로 처리하기 힘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체관계자가 방문해 분야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기업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게 된다.

## 충남도, 기술력 우수기업 300억 원 자금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 부족으로 융자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술혁신형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창업 5년 이내인 신기술 보유기업에 업체당 최고 5억 원 범위에서 시중 최저 금리인 연리 3.8%로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 혁신형 기업자금 신청서와 기술평가 신청서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충남지역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 기업사랑/기업지원소식)를 참조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5) 또는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1-539-450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TRI, 지상파DMB 해외 수출 본격시동

ETRI가 연구소기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여 국제표준에 선정된 지상파DMB 기술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수출을 본격

화하고 있다. ETRI는 3호 연구소기업으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디엠브로(주)를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인 'DMB 누산타라(NUSANTARA)'에 올해까지 지상파DMB 운용시스템 및 총 15만대 규모의 단말기 수출을 시작한다. 또한 베트남, 홍콩,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에도 지상파DMB 확산을 위한 공급 계약 등을 협의 중에 있다.

ETRI와 'DMB 누산타라'는 작년 11월 지상파DMB 기술 확산을 위한 상호협약에 따라 오는 6월에 초도 물량으로 지상파DMB 운용시스템 및 단말기 1만 대를 수출(약 35억 원 상당)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단말기 14만 대 등 총 15만 대의 단말기(약 165억 원 상당)를 디엠브로(주)를 통해 수출할 계획이다.

### 차세대 자동차 융합기술센터 건국대에 오픈

건국대학교가 '차세대 자동차 융합기술센터'를 오픈했다. '차세대 자동차 융합기술센터'는 올해 현대자동차와 건국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체결한 'IT기반 자동차산업 일류화 사업'에 관한 MOU(업무협력협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기술센터 개설을 통해 기계-전기-전자 기술 융합을 통한 미래형 자동차 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의 첨단 성능에 정보와 오락 등 운전의 재미를 더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을 핵심과제로 연구할 예정이다.

### 전경련, '기업경영 Way 2008' 펴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영사례를 모은 '기업경영 Way 2008'을 펴냈다. 이 책은 23개의 주요 경영사례를 경영전략·국제경영, 재무·회계, 경영·오퍼레이션 관리 등 주제별로 분류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과 그 결과에 대해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3권이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의 정가는 1만5,000원이다. 시내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 개원 1주년 세미나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는 4월 29일 센터 교육장에서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화학 기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태양전자산업 및 소재기술 개발 동향과 신화학 산업 바이오리파이너리의 현황과 한국화학연구원의 역할 등이 발표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 울산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4월 개소하여 소재원천 개발사업,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울산시·화학연구원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중대형 R&D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R&D 클러스터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 시대 개막

지식경제부 산하 전기전문 출연연구기관 한국전기연구원이 안산분원 시대를 열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소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국전기연구원 본원은 1970년대 창원에서 개원했으며 이번에 개원한 안산분원은 정부와 안산시,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5년간의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406억 원의 투자로 완공됐다.

안산분원에 전기연구원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는 융합기술연구단

과 시험인증본부 산하 전기기기평가부, 그리고 첨단 광학기술 관련 러시아국립 광학연구소와의 합작연구기관인 SOI-KOREA센터(소이코리아센터) 등이 위치하게 된다.

전기융합 기술과 차세대 전기기기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융합기술연구단도 수도권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융합기술분야(NT, BMT)의 국가연구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원자력(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신개념 패치 개발

아토피 환자들이 겪는 극심한 피부염을 완화해주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신개념 패치를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해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노영창 박시름은 느릅나무, 아성초 등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토종 약용식물 추출물을 수용성 고분자와 혼합한 뒤 방사선 처리를 통해 겔(gel) 타입으로 만든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패치'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패치는 아토피로 인한 피부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긁어서 발생하는 2차 감염까지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토피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패치는 제조공정이 간편하고, 효능이 우수하여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관련 기술을 국내 특허 등록했고 미국 일본 유럽에도 특허 출원했으며, 충남대병원 피부과와 공동으로 약 2년간 임상실험을 실시한 뒤 제품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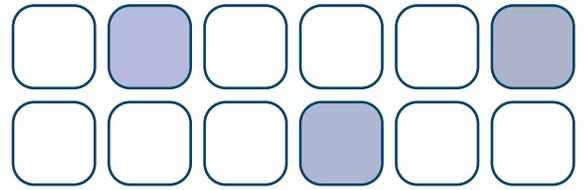
### 실리콘밸리, 대기업 M&A 러시

벤처의 산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최초 신생 기업들의 기업공개(PO)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 대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신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는 실리콘

밸리 소재 상위 150개 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진을 탈피하기 위한 기업들간의 M&A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4위에 랭크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업체 BEA시스템즈의 경우에도 오리클 인수가 결정됐다. 포털 사이트 야후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합병될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구글·시스코시스템즈·HP 등도 실리콘밸리 M&A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 신생 기업들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 VD RADAR



전문가들은 이처럼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IPO보다는 M&A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전반적인 생태계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한다.

인텔 · 오라클 · 시스코 같은 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으로 성장해 기업의 덩치와 자금 조달 능력은 커진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다. 반면 신생 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경우, 증권시장 상황이 악화된 시점에서 기업공개 보다는 대기업들에 피인수돼 자금을 받고 비즈니스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협조를 받는 게 더 이익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세는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머큐리뉴스는 실리콘밸리 '그린IT'의 집적단지조로 바꿔 놓고 있는 태양에너지 기업 '선파워(SunPower)'의 급성장 사례를 들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신생 기업들을 돕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日, 세계 첫 IP휴대전화 상용화

일본 통신벤처업체인 일본통신(Japan Communications)이 올 여름부터 세계 최초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휴대전화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 니혼게이지(日本經濟新聞)는 일본통신이 올해 7~9월에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인터넷프로토콜(IP)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IP 전화 상용 서비스는 많지만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IP 전화서비스는 세계 처음이다.

IP휴대전화는 정액제로 가입자끼리는 마음껏 통화해도 통신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화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경쟁자들이 개방된 망으로 진입,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 요금도 더 떨어지고 서비스도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일본통신은 매달 3,000~4,000엔(3~4만 원) 정도인 인터넷 데이터서비스 요금에 약 1,500엔(1만 5,000원)을 더 받는 정도의 요금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中벤처기업 투자 대기중

중국판 코스닥인 창업판(일명 차스닥) 개설이 임박하면서 200억 달러 규모의 벤처캐피털이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홍콩 문화보가 보도했다. 문화보는 선전에서 중국 벤처캐피털포럼에 대한 벤처캐피털 대표 30여 명을 포함, 400여 개 벤처캐피털 업체가 참가했다고 전했다. 투자 유치를 원하는 중국의 500여 개

벤처기업도 참가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창업판 상장 규정을 공표한 데 이어 조만간 개설 시기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벤처캐피털도 KTB네트워크와 LG벤처투자에 이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상하이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미 벤처캐피탈 감소 전망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의 투자 분위기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CVA)가 170개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71%가 올해 전체 벤처 투자 규모를 200억~290억 달러 선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 실적 294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모간스탠리, 인도에 사모펀드 전문사 설립

미국 2위 증권사인 모간스탠리가 오는 5월 인도에 사모펀드 전문 계열사를 설립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모간스탠리는 이를 위해 인도 최대의 사모펀드인 ICICI벤처에서 일하는 스리니바사 라오를 운용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라오는 인도내에서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할 예정이다. 모간스탠리는 15억 달러 규모인 한 펀드를 인도 지역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차스닥 6월 출범, 중국 벤처시대 성큼

중국판 나스닥인 차스닥 시장이 오는 6월 남부 광둥(廣東)성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출범한다.

증권업계는 5월 중 상장 요건 등을 최종 확정하고, 기업들의 상장 신청서 검토를 거치는 대로 오는 6월 차스닥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차스닥 시장이 출범할 경우 그동안 자금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벤처 붐을 예상할 수 있고, 인수·합병(M&A)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차스닥 출범은 중국 중소·벤처 기업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는 차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차스닥이 출범한 미당에 중국 기업이 굳이 한국 시장에 상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차스닥이 출범한다고 해도 코스닥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스닥 시장은 내국인만 살 수 있는 이른바 'A주'만 거래하기 때문이다.